

전북대, IT 융·복합 연구지원 '날개'

미래에너지융합핵심센터, 공대 부속농장에 등지 연구장비 집적화, 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구축

교육부의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선정된 전북대 미래에너지융합핵심센터(센터장 서형기)가 공과대학 부속농장에 새 동지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대학의 R&D 역량 향상과 효율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과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해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대는 6년간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IT 기반 에너지 융·복합 연구를 위한 미래에너지융합핵심센터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

장 및 변환에 관한 분석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에너지융합핵심센터는 공대 부속농장으로의 이전을 통해 기존 대학내 설치된 연구장비를 집적화하고 전북지역에 조성돼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센터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분석 및 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형기 센터장은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IT 기반 이화분석장비, 생물학적장비, 에너지·재료 연구장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공동 활용을 통한 다분야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부의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선정된 전북대 미래에너지융합핵심센터(센터장 서형기)가 공과대학 부속농장에 새 동지를 마련했다.

우리 대학의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교직원 및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서기관 승진 대상자 8명 선발

역량평가 통해 공정성·투명성 제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역량 평가를 통해 서기관(4급) 승진대상자 교육행정직 7명과 시설 1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교육청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현으로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서기관(4급) 승진에 역량평가를 도입했다.

서기관(4급) 승진 심사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역량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추천을 거쳐 교육감이 최종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현장평가는 5급 재직 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이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리더십 등을 평가하고, 역량평가는 5급 재직 기간 동안 주요 업무실적과 서기관으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1인당 40분 이내의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평가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역량평가는 평가위원 전체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서기관 승진 대상자들은 2021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다.

/정은성 기자

도내 공립 유·초·특수교사 임용 1차 시험 총 294명 합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월 2021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294명을 확정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211명 선발에 1,999명이 지원했다. 유치원 141명, 초등 117명, 특수유치원 21명, 특수초등 14명 등 총 294명(일반 292명, 장애 2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개인별 합격여부 및 성적은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e.go.kr>)에서 11일 오후 6시까지 본인 인증시 조회가 가능하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1차시험의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결정했으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 12시~13시 제외) 관련서류를 전북교육청(1층 행정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2차시험은 내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교직직접 심층면접,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초등), 영어면접(초등)의 과목으로 전주온빛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2월 2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하반기 실지감사 착수

18일까지 '학생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5개 안건 다뤄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 간 6층 회의실에서 2020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지감사는 시민감사관 7명이 감사 1번과 감사 2번으로 나눠 총 5개 안건에 대해 실시한다. 감사 1번에서는 ▲학생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교과과정제 준비(선

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 감사 2번에서는 ▲시설공사 및 시설물 사용 중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설계 공모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에는 교육감에게 시민감사관협의회 명의로 감사결과 의견

서를 제출, 교육감은 그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처리 후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참여로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로 청정 전북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면서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교육현장에 반영,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 산외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미래 학교의 모습 잘 그려낸

정읍 산외초등학교 산외그린 스마트 스쿨 팀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일반인 대학생 학생 구분 없이 최첨단 미래도시와 스마트시티를 '미인크래프트' 게임을 활용, 자유롭게 공간을 설계해 스마트시티 미래학교 도시자원을 연계한 학습 공간 조성, 내가 바라는 미래학교 등을 해결해 보는 전국 규모의 대회다.

지난 9월 시작된 예선 대회에 200여 팀이 참여한 가운데 48개 팀이 예선을 통과, 본선에서 산외그린 팀은 장애 없는 산외그린 스마트 스쿨, 친환경

미래학교 산그린 스쿨' 두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진)



미래 학교의 모습을 잘 그려낸 산외초 팀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상(장려상)과 상금 40만원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원격 화상 수출상담회 진행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원격 화상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World-Okta 유럽-CE지회 10여 회원사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도내 17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70여 개의 우수 상품을 온라인으로 소개했다.

강동오교육의 김스내, 후당시립 등 전북지역의 우수한 전통식품을 CE 지역에 알리고, Ultragency LTD와 수출

을 위한 협의가 진행됐다. 특히 익산 소재 기업인 '다슬리'팀들은 식초, 간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을 동유럽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ABCO HUNGARY.KFT(대표 이영인)에 수출하기로 합의하고, 영국 런던 소재 Wisbury Labs Ltd와 유럽시장 제품 공급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주송 단장은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